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6(土)	17(日)
흐리고 비 18 / 22℃	흐리고 비 18 / 21℃

- News**
- 학교 납품비리 4명 영장 ③
  - 기능대회 준비 광주 '3인방' ④
  - 위성미, PGA 또 부진 ⑩



- Jeollado**
- 그 사람-장형태 前지사 ⑦

- Entertainment**
- 드라마가 시는법 ⑧
  - 한국소설 영화제작 붐 ⑨

-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토란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헌재소장 공백사태' 우려 목소리 높다

## “사소한 절차논쟁 보다 국익이 우선”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 조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합리적인 대안제시보다는 내년 대선 등을 의식해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15일 일체정 국회의장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최순영 민노당 원내부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장실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지난 13일 원내 비교섭단체 3당이 '청와대의 사과'를 임명동의안 해법으로 제시하자 유감을 표명했던 이병만 청와대 비서실장

### 靑 “유감” 불구 한나라 정치공세 일관 비난 거세

도 참석, “국회와 국민들께도 염려를 가져드려 죄송스럽다”며 거듭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회동에도 불참하는 강수를 고집했다. 이에 따라 19일 재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국정감사 일정에 밀려 동인의 처리는 11월로 미뤄질 가능성

마저 점쳐진다.

이 같은 사태와 관련, 지역 주민들은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락에 치중, 헌법 최고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난의견을 내놓고있다.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이나 자질문제가 아닌 임명절차 적법성 문제를 물고늘어지는 것은 결국 국회 혼란을 부추겨 민생법안 동반지연 등 국익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번 정치국회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기고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힘 겨루기

에 들어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정치력을 발휘, 이번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은 현실적인 명분을 야당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야당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사태 해결에 접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5일 성명을 내고 “여야는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반대하기 위한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함과 아울러 조속히 임명동의안 처리를 이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장 공백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 13호 태풍 '산산'(SHAN-SHAN)이 한반도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에는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산산'은 15일 새벽 3시 현재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hPa), 최대

### 태풍 '산산' 북상

주말부터 남해안 영향권  
강풍 동반 최고 60mm 비

풍속 초속 45m의 매우 강한 소형급으로, 시속 11km 속도로 북서쪽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6일 오후 늦게부터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부터 물결이 높게 일겠다”고 15일 예보했다. 16일까지 예상강우량은 10~30mm, 상대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해안 등 해안 지방에는 많게는 6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17일 새벽 3시에는 서귀포 남쪽 약 44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월요일인 18일 대한해협을 지나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r

## 노대통령 “지금 대북제재 논의는 부적절”

### 부 시 “작통권 이양시기 협의해 결정”

#### 韓美 정상회담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오전 (한국시간 15일 새벽)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서 (작통권 이양) 적절할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양 정상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5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고위급 외교실무자들이 협의해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직후 언론회동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관련, “실무 협의의 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복잡하다”며 “양국이 북핵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6자회담 재개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참가하는 후속 협회가 내주 중 개최될 예정”이라며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방안과 6자회담이 재개됐을 경우 9·19 공동성명의 이행 진전 방안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논의 여부와 관련, 노 대통령은 언론회동에서 “유연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북핵과는 별개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삼 또 다른 어떤 제재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와 관련, 언론회동에서 “제가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작통권의 정치적 논란을 잠재웠다.

한편 노 대통령은 13박14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 헬싱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및 미국 실무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16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오늘 귀국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오후(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 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조수미**  
광주공연  
9월 24일(월) 오후 8시  
관주관 하에 순천향대극장  
공연료 100만원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